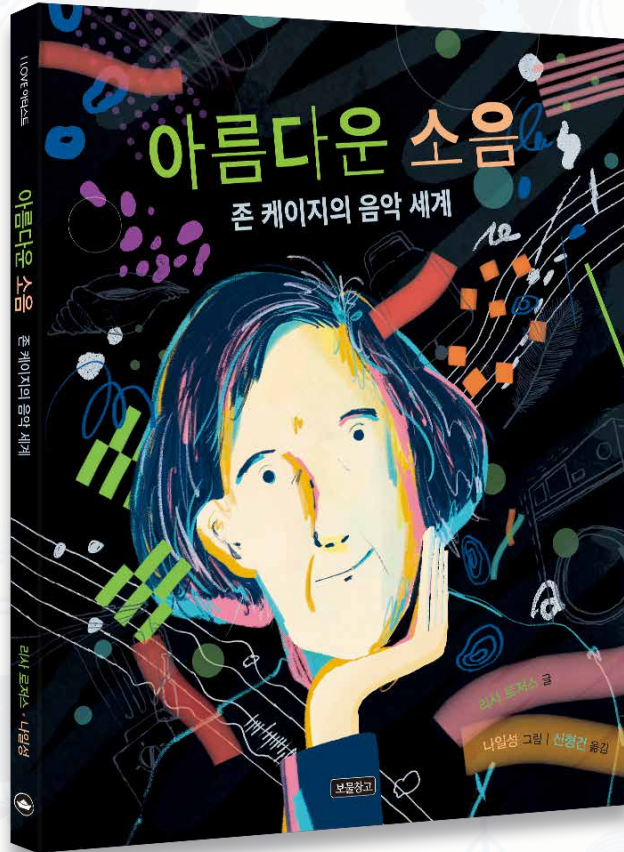


|유아~초등 1, 2학년

〈아름다운 소음 - 존 케이지의 음악 세계〉

리사 로저스 지음 | 나일성 그림 | 신형건 옮김

★〈북리스트〉 추천도서 ★〈커커스 리뷰〉 추천도서 ★〈훈 북〉 추천도서



“책과 독서를 기리는 그레이스 린과 케이트 메스너의 화려한 협업.” -〈커커스 리뷰〉

“독자들이 ‘모든 소음은 아름다울 수 있다’는 개념을 숙고하도록 이끈다.” -〈퍼블리셔스 위클리〉

“파괴자이자 선구자인 작곡가에 대한 훌륭한 소개.” -〈스쿨 라이브러리 저널〉

“나일성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은 ‘소리’라는 감각적 경험을 ‘시각’이라는 또 다른 경험으로 전환한다. 놀라운 표현 방식이다.” -〈훈 북〉

문이 쿵! 닫히는 소리, 믹서기가 웅웅대는 소리, 바람이 훑훑 지나가는 소리... 누구나 귀를 틀어막고도 남을 만한 소음이지만 이러한 소음까지 모두 음악이라고 믿었던 작곡가 존 케이지. 그는 이 그림책만큼이나 개성적이고 독특하다.

『아름다운 소음』을 통해 독자들은 ‘4분 33초’를 비롯한 존 케이지의 유명한 작품들을 직접 듣는 듯 생생하게 볼 수 있다. 또한 소음조차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.

그저 시끄럽고 짜증스러운 ‘소음’이나 ‘잡음’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삶을 조금 더 다채롭고 유연하게 바꾸어 줄 것이다.

읽기 전 활동

1. ‘아름다운 소음’이 무엇일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.
2. 책 표지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세요.
3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? 이유와 함께 말해 보세요. (좋아하는 음악, 말소리, 자연의 소리 등 무엇이든 좋아요.)
4. 음악, 연극, 영화와 같은 작품을 감상하러 가서 실망한 경험이 있나요? 왜 실망했는지, 그런 때에 기분이 어땠는지도 말해 보세요.

읽기 중 활동

1. 그림 곳곳에 있는 존 케이지를 찾아보세요.
2. 책의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소리·그림 표를 보면서 책 속의 그림들이 어떤 소리를 가리키는지 찾아보세요.
3. 작가의 말을 읽고 다음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존 케이지의 음악 작품 제목을 맞추어 보세요.
 - “만약에… 음표 대신에 때때로 점과 빗금과 소용돌이 모양을 그리고 더 많은 소용돌이와 휘갈긴 선을 그리면 어떨까요?” 정답: ()
 - “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건반을 하나도 치지 않았고, 소리라고는 바람소리, 빗소리,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소리뿐이었는데,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?” 정답: ()
 - “만약에 여러분이 그 콘서트 동안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웃는지, 박수를 치는지, 심지어 바지에 불이 붙는지조차 몰랐다면?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음악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다면?” 정답: ()

3.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? 친구와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.

예시) 포유류, 자녀, 생명체, 우주 여행자, 친구

4. 늘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친구가 있나요? 좋은 친구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.

5.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라고, 배우고, 변화해요. 지금 내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나 익히고 싶은 것을 말해 보세요.

읽은 후 활동

1.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.

2. 자신만의 기호로 악보를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 사물로 음악을 연주해보세요.

3. 책 속에 나온 존 케이지의 공연을 실제로 찾아보고 감상을 나누어보세요.

4. 존 케이지처럼 평소에 좋다고 느낀 적 없었던 것을 색다르게 바라보고 그것의 장점을 이야기해보세요.(소리, 사물, 생물 등 무엇이든 좋아요.)

